

청년창업가 릴레이 특강

군산시 청년뜰, 1주일간 지역 학교들며 도전 메시지 전파
매년 11월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170여개국 동시 공유

군산의 청년창업가들이 지역 학생들에게 혁신적 도전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강사로 나섰다

군산시 청년뜰(센터장 안태복)은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을 맞아 지난 9일부터 1주일간 지역 초·중·고·대학교에 청년창업가들이 방문해 '기업가정신 릴레이 특강'을 진행했다.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Global Entrepreneur Week)은 매년 11월 셋째 주로 170여 개국이 동시에 기업가정신을 확산·교류하는 행사이다.

이번 특강에 나선 12명의 청년창업가는 ▲신나래(테레시디자인) ▲임희성(부엉이스튜디오) ▲이은화(오늘도

꿈지락) ▲이은혁(소울잉크타투) ▲김의진(시서화 한국화스튜디오) ▲정다은(옛홍정리수납컨설팅) ▲김영훈(군산특수) ▲김의진(카페에스더) ▲이영근(유스팅) ▲권재현(브랜더스) ▲한영훈(아이티몰즈) ▲고상현(제보식당)이다.

이들 모두 군산시에서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희망기움사업에 참여해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펼치고 있거나 수제창작분야 청년보육공간인 군산메이드마켓에 입주하고 있는 청년창업가들이다. 청년창업가들은 지역의 초·중·고·대학생들을 찾아가

기업가정신의 중요성과 사례를 주제로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는 텔레이식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자신만의 창업스토리를 바탕으로 도전하는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창업기를 존경하는 사회를 만드는 창업문화 확산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도전의 용기를 심어줬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학교는 회현초등학교, 회현중학교, 동원중학교, 금강중학교, 중앙고등학교, 군산대학교로 총 6개교이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을 맞아 군산에서도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고 도전정신 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를 운영할 수 있어서 기쁘고, 이번 행사에 동참해주신 청년창업가들과 각 학교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LINC+사업단은 최근 교내 학생지원관 산학교육 강의실과 전주드론축구상설체험장에서 드론자격과정 등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 드론·코딩교육에 뜨거운 관심

원광대, 드론 자격과정·스포츠 실습과정 교육 실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LINC+사업단은 최근 교내 학생지원관 산학교육 강의실과 전주드론축구상설체험장에서 드론자격과정 및 드론스포츠 실습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4차 산업체형 특화교육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드론 조종기술 및 하드웨어적 구성과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전교육에 이어 4일 동안 진행된 본 교육에는 재학생 18명이 참가해 전 과정을 이수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드론의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드론에 코딩교육을 접목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드론 조종 및 제작과정, 다양한 드론을 활용한 조종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갖도록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을 허위 신청하거나 유예기간을 아기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와 추징을 지속할 예정이다"며 "코로나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시민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장양원 기자

득하고 전주드론축구상설체험장을 방문해 실전 연습도 병행했다.

교육을 주관한 송문규 LINC+사업단장은 "이번 특화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드론을 활용해 다양화 분야로 취업과 창업에 성공함으로써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대 LINC+사업단은 2020년 7월 출범한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의회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협의회 소속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2020년 한국대학드론축구대회 및 드론클래식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가족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

군산시가 가족센터 건설을 추진하며 공동육아와 생활문화 서비스 등이 좋았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는 종암부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선정돼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보육·복지·의료·문화·체육 등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는 각종 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 4종, 연면적 2,000㎡ 규모로 미장 지구 내에 건립되는 가족센터는 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25억원을 지원 받아 총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추진하게 된다. 이곳에는 건강기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무실, 공동육아나눔터, 교육장, 상담실, 다문화 언어발달

교실, 프로그램실 등과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학습공간, 방음공간, 디자인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인 가족센터 건립으로 주민들의 복지·문화, 이동 보육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향후 가족센터 건립으로 건강기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 활성화와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돌봄 서비스 확장,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시설 간 프로그램 공유로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우리마을돌봄' 운영 본격

주민공동체가 마을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우리마을돌봄' 운영이 본격화됐다.

익산시는 12일 모현동·연한세상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우리마을돌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현율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모현·연한세상아파트 임주자대표회장 이용아동,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원 10명 규모인 우리마을돌봄은 지난 8월부터 운영됐으며 하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6시 방학 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일시, 긴급 돌봄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작된 이번 사업은 주민공동체가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마을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학교 방과 후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시설로 가구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만 0~5세는 공동육아방으로도 사용된다.

모현·연한세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운영하며 매년 2개소씩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장용원 기자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 셀프마케팅 경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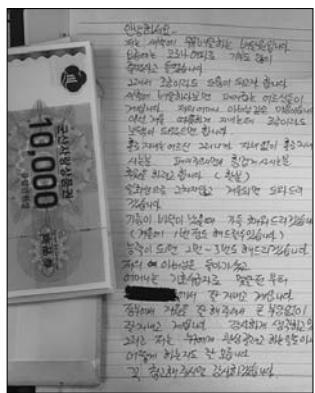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회 셀프마케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진대회는 최근 교내 취업세 미니실에서 개최됐고, 신청자 가운데 최종 순위권에 오른 10명이 최종경합을 벌였다.

이 대회는 면접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셀프브랜드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취업난리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인 표현방법 등의 실전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면접 평가요소를 파악하여 직무역량에 맞는 스피치 전략을 수립하여 차별화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이러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난 10일 익명의 한 남성이 군산시 복지정책과에 찾아와 봉투를 전달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